

박치기 명수 거북선의 비밀 '단단한 참나무'에 있었네

나무문화재 연구가가 30년동안
손톱만한 나무조각에서 밝혀낸
옛나무들의 사연·숨겨진 역사



나무로 만들어진 무석사 부량수전(위)과 해인사 팔만대장경판

책속의 밑줄긋기

▲“숲속의 나무들은 좁은 공간을 나눠 갖고 살아간다. 하지만 나눔의 방법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연 다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조금의 빈자리라도 생겼다 하면 주위의 나무들은 우선 가지부터 들이밀고 본다. 처음에는 자기만 먼저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맞닿은 채로 오랜 세월이 지나다보면 함께 협조해야 살아남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조금씩 메워 나갈 수 있도록 아예 몸을 합쳐 한 나무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에 이르기도 한다.”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 때 사람들은 흔히 죽는 것이 낫다고 한다. 나무나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숲 속에서 한세상 살다가 나이를 먹어 썩어 넘어지거나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베어진다. 어린 썩이 새로 자라지만 자기 죽음의 자리를 다시 메우는 냉엄한 자연법칙을 나무라고 모를 리 없으니 흔쾌히 받아들인다.”



역사가 새겨진 나무 이야기
박상진 지음
김영사 1만3000원

나무는 선조들의 삶을 지켜온 '현장목격자'다. 5천 년 우리민족의 삶 가운데는 언제나 나무가 빠지지 않았다. 집

때문이다. 이처럼 이 책에서 그는 평소 소 많은 사람들이 그저 무심히 지나쳤을 오래된 나무조

짓고, 음식 해먹고 살림살이를 만드는 인간생활 모두에 나무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 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조들과 삶을 같이했던 옛 나무의 사연들은, 바로 역사의 편린을 알아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역사가 새겨진 나무 이야기》의 저자인 박상진 교수(경북대 임상공학과)는 이러한 나무 조각을 통해 역사의 비밀을 벗겨내는 나무문화재 연구가다. 그는 손톱크기 남짓한 나무문화재 조각을 붙잡고 현미경과 씨름하며 30년을 보냈다. 이 책에는 그 세월동안 그가 밝혀낸 나무 인파의 사연들에 관한 연구 결실들이 오롯이 담겨 있다.

그 첫 결실은 1981년 일명 '신안보물상'이라 불리는 배의 재질을 분석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배의 조각 일부를 뜯어 연구한 결과 일본에서만 자라는 삼나무가 배의 재료 중에 일부 섞여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논문을 발표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목재조직학'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 알린 계기가 됐다.

이후 그의 명성을 고고학계에 확실히 인식시킨 사건이 있었다. 백제 최대의 고분으로 알려진 무령왕릉 발굴이 있는 지 20년이 지난 1991년, 저자는 우연히 이 무덤에서 출토된 나무 판의 아주 작은 조각을 입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모두 이 판의 재질이 밤나무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연구실로 돌아오자마자 나무 조각을 현미경 접안렌즈로 들여다본 그는 잠시 후 소스라치게 놀랐다. 작은 조각은 밤나무가 아니라 일본의 남부지방에서만 자라는 금송(金松)이었던 것이다. 그의 발표로 학계는 또 한 번 발각 뒤집혔다. 이 판이 일본에만 있는 목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령왕이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기록을 증명하는 것이었기

각 하나에 얼마나 유장한 역사의 흐름과 사연이 담겨 있는지를 담담한 어조로 깨우쳐 준다.

그가 30여년동안 나무문화재와 씨름하면서 무엇보다 관심을 기울인 것은 단일 나무문화재로는 최대라고 할 수 있는 해인사 팔만대장경이다. 팔만대장경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는 여전히 비밀에 싸여 있다. 그는 팔만대장경의 전설과 진실, 그 간극을 파고든다. 그리고 마침내 팔만대장경은 자작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에서 흔히 보는 산뽕나무와 돌배나무로 만든 것이며, 제작 장소 또한 강화도가 아니라 해인사 근처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는 책에서 이런 나무 분석 이야기들과 함께 나무에 얽힌 다양한 상식들을 구수한 옛이야기 들려주듯 쏟아낸다. 나이테란 나무가 자랄 당시의 환경을 권권이 기록한 '자연의 하드디스크'이며, 거북선이 박치기 명수로 일본 함선들을 박살낼 수 있었던 것은 단단한 참나무로 만드는 조선 군선의 특징 덕분이었다는 이야기 등도 이어진다. 또 신라 천년의 신비인 천마도의 캔버스가 뭇 백화수피(흰 나무껍질)는 방부와 방수 성분을 가지고 있어 수천 년 땅속에 묻혀도 거뜬히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라를 망하게 한 것이 나무, 즉 숯이었다는 그의 주장 또한 흥미롭다. 신라 후대의 주 연료였던 숯의 대량 소비로 인해 경주 부근의 참나무숲이 파괴돼 자원이 고갈됐고, 가뭄과 기아가 뒤따라 국가의 기강이 흔들렸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 책은 멀리 석장리 구석기시대의 나무 유물에서부터 안압지의 나무배, 목포 달리도배 등 고선박, 무량수전·봉정사 극락전 등의 건축재, 글자가 새겨진 목판 등 나무문화재에 얽힌 사연과 세월의 흔적까지도 담아내고 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오늘날 베네치아는 영화제, 비엔날레, 그리고 곤돌라를 타고 돌아다니는 낭만적인 도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바다의 도시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지음/정도영 옮김
한길사 1만5천원

그러나 바다지향 도시국가 베네치아는 한때 '지중해의 여왕'으로 불리며 근대유럽 문명을 선도했다.

이 책은 로마제국 말기 훈족의 침입으로 이탈리아인들이 '라구나'라고 부르는 석호의 갯벌 위에서 출발한 베네치아가 지중해의 대국으로 성장하여 열강과의 갈등 속에서도 번영을 누리면서 수백 년을 버티는 과정을 담담하게 서술해 놓았다.

이탈리아에서 30년이 넘게 독학으로 로마사를 연구한 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눈을 통해 그려지는 이 책을 읽다보면, 독자로 하여금 마치 베네치아라는 살아 숨쉬는 주인공의 탄생과 흥망성쇠의 1000년간의 일대기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한다.

한정된 영토, 인구, 자원의 '유전적' 제한을 안고 있던 이 작은 나라가 중세 1000년 동안 부국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줄 아는 사고방식과 철저히 실리적인 관점에서 일을 처리한 베네치아인 들의 합리성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한 합리적이고 융통

베네치아에서 배우자

1000년 황의 비결, 합리적인 사회시스템

적인 면은 사회시스템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가령 현대 은행의 시원 지점가, 민주정도 군주정도 아닌 과도기적 정치체제인 원수정이 그것이다. 원수 정치체제는 원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의 남용이 방지된 견제장치라고 생각한다.

또한 귀족은 시민들을 선도할 의무는 가지고 있지만, 세금 면제 받는 권리는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전쟁이 나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전쟁에 대한 피해보상도 일개의 무명 선원을 받으나 귀족들은 받지 못했다. 그것이 귀족의 당연한 의무라고 베네치아의 귀족들은 생각했다. 스스로가 앞장서서 정의를 구현하고, 시민을 보호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공화국을 위함으로써 귀족과 시민이 함께 단결할 수 있었다.

그러한 안정적인 정치기반은 경제의 풍요를 가져왔고 베네치아가 대부호들의 본거지로 화려함, 유년함으로 중세유럽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그 기반위에서 절정을 누렸고 그럼에도 자유를 방종하지 않았다. 비록 도시형 국가에서 국가형 국가로 탈바꿈하는 근대로의 흐름에는 편승하지 못해 천년의 역사를 마감하면서 나폴레옹의 군대에 항복하고 말았지만 마지막까지 베네치아다운 자세를 잃지 않았다.

저자는 베네치아공화국이 나폴레옹의 침입으로 멸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사했다고 주장하는데, 천년을 버텨온 이 일리 있는 말이 라고 생각한다.

'성자(盛者)는 필쇠(必衰)'라 하였다. 역사의 흥망성쇠는 돌고 돌며 영원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국가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얼마나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가를 깨닫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이상적인 공화정체제로 무역과 예술 그리고 시민의 자유를 진흥시킨 베네치아 1천년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 위기에 처한 한 국가와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 임형석(FX디지털 마케팅팀장)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와 의정등록 다수 보유업체◆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보관상태

중 등 만월등

※ 만월등, 중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광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